

JEW'S FOR JESUS

Australasia Newsletter

September 2011



두려움 vs 관심



Moishe Rosen
(1932-2010*)

Jews for Jesus의 창립자인 Moishe Rosen의 칼럼들을 계속 실어주시길요 청하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칼럼은 1986년 저희 미국 소식지에 실린 것으로, 911 테러 발생 15년전에 실렸습니다. 911 테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글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어두운 날들 동안에 자유세계는 극심한 공포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전격작전을 사용하여 승리 위에 승리를 계속 쌓아나갔습니다.

전격작전이 먹힌 이유는 - 독일 폭격기들이 잠재적으로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독일 팬저 탱크들이 포탄을 (소문에 의하면) 문자 그대로 튕겨낼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격작전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독일의 적수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도록 계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전이었습니다.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는 느렸지만, 특별장치를 붙여서, 폭격기가 강하할 때 뿔속까지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게끔 하였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가 폭탄에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노라면, 곧 희생자가 될 사람들은 도망치기보다 보통 얼어붙곤 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들은 가장 약하고 잘 보이는 곳들을, 강하고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언제나 영화 카메라를 갖고 있어서, 낙담한 포로들, 씩어가는 전사자들, 그리고 즐거워하며 승리한 나찌 군대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기를 꺾는 이 심리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의 연설이 몇 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1933년 그는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저는 다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 이름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 그것은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는 필수적인 노력을 마비시킵니다." 이 간단한 해안은, 2차 세계 대전의 어두운 날들 동안 연합군을 확실히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삶의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됨으로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히틀러는 어쩌면 바로 사탄으로부터 전격작전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혐오스러운 힘과 우리의 혐오스러운 부족함을 보여주고, 그 자신을 무적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 유명한 "감언이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얼어붙는 공포 속에 목까지 파묻어버리는 거짓말 폭풍 전술을 구사합니다. 공포 알갱이가 우리의 얼굴에 날아들고 재빠르게 쌓아져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게끔 된 자신을 봅니다. 두려움으로



마비되어서 이 모든 것이 차가운 환상일 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악한 두려움 vs 기독교적 관심

사악한 두려움과 기독교적 관심은 서로 다릅니다. 사악한 두려움 - 사탄의 전격작전이 만들어낸 감정 - 은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지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의 평화, 생산성과 관계들을 빼앗아갑니다. 마침내 우리가 진짜 문제나 가짜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 해결하게끔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기독교 삶 속의 사악한 두려움은 간혹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허용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중 하나는: "너는 마땅히 행복하지 말아야 돼. 너는 좋은 것들을 가질만큼 좋지 않아." 우리의 정신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만한 죄들과 나쁜 사고방식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악한 이로부터 오는 이 불타는 화살에 반응하여, 어떤 기독교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는, 과장된 위협들과 상상의 위협들로 이루어진 공포 연속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깊은 나락들 속으로 지쳐서 걸어 들어갑니다 - 그것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데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주시는 사면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탄의 고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끔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잃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발에 대해 단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름으로 대답하십니다 - 그의 사랑과 용서를 영원히 정립시킨 단 하나의 행위: 예수!

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탄의 고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끔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잃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발에 대해 단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름으로 대답하십니다 - 그의 사랑과 용서를 영원히 정립시킨 단 하나의 행위: 예수!

위대합니다. 우리는 강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무기고와 힘을 우리의 방어를 위해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죄책감의 짐을 짊어지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나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만드시고, 그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할 힘을 주셨으며,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쉬고, 우리 인생에서 잠깐 지나가는 문제들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두려움과 달리, 기독교적 관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토대를 둡니다. 우리의 인지력을 날카롭게 하고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게끔 합니다. 모든 도전을 직면하고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두려움을 거룩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관심은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진실에 토대를 둡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과 씨름하지 않고,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감정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안이 만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 단어로 답하십니다: 신뢰! 신뢰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안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 우리의 방어자이자 수호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게끔 되신" 그 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탄의 전격작전에 공격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힘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 라고 우리가 믿게끔 그 사악한 이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는 것보다 짓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의 공격이 만드는 날카로운 위협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고 견고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모두 적용하는데 몇 가지 도움사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고린도전서 10:13).

- 많은 성경구절로 믿음을 키우고 특히 "신뢰"에 대한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당장 떠오르는 것으로 이사야 26장 3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음을 기억하십시오(요한일서 4:18).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 갈보리에서 완전히 이루신 - 은 사탄의 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고발 무기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어자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 자체 밖에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지부 소식



로스 앤젤레스

Cyril Gordon이 보고합니다: 베니스 해변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곳이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그 곳에 옵니다. 디즈니랜드는 아니지만 전도를 하기에 좋은 곳이지요! Jews For Jesus의 LA 지부는 지난 십년 동안 꾸준히 그 곳에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베니스 해변에 무료 책자가 판대를 세웠습니다. 전도부원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29명과 접촉하였고(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6명과 한 명의 유대인을 포함하여 - 이들을 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400권의 전도 책자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가판대를 세울 계획입니다.

벨라루스

Dima Arlouski가 보고합니다: 민스크로 첫 방문을 잘 마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 정보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민스크에 있는지 너무 오래되었고 저는 그 곳을 개척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음 간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젊은 여자가 나오자 놀랐습니다. 저는 Phira가 아직도 거기 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Phira는 그녀의 할머니이며 2년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녀가 유대인이라고 물었고 그녀는 유대인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서 저는 Jews For Jesus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목소리는 곧 가라앉고 바로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거짓말쟁이와 반역자들이라고 단언하고 제가 다시는 그 집에 오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두번째 방문은 좀 더 평화로웠습니다. Natalia는 저희를 안으로 초대하였고 우리는 좋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우리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성경을 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문에서는 55세 유대인 여자인 Galina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10년 후에도 그녀를 기억했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주의깊게 제 말을 들었고 그녀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읽으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Rema(80), Yefim(45) 그리고 Larissa Karpovsky(55)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배우기 원하는 뜨거운 갈망을 마음에 주시도록 말입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 민스크의 유대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시드니

5월의 주말에 열렸던 뉴에이지 축제 Mind, Body, Spirit에 저희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은 금년에도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였습니다. 많은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는 수십명의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연락처를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접촉할 수 있게 하였고 수백명의 사람들과 예수 복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서점은 계속하여 일주일마다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에 대해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토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많은 마음들을 여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왜 가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제 우리는 성경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댄스 시간과 히브리어 강의도 갖습니다. 모두 현지의 믿는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척 기쁩니다.

라코프

Mikhail Vayshengolts가 보고합니다: 디미트리라는 40살의 남자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었는데 그는 황급하게 지나가다가 제 티셔츠를 보고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의 말들은 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더 정보를 들을 수 있게끔 연락처를 흔쾌히 주었습니다.

에센

Dina Markova가 보고합니다: 저는 "The Only Hope for Peace"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저를 지나친 유대인 커플이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전도지를 달라고 했지만 부인은 불쾌해져서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남편은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 손녀가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그 곳에서는 성녀 마리아와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애가 말하기를....

부인이 너무나 급해보여서 저는 바로 말을 끊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거든요. 대화를 몇 분간 나눈 후에 Eduard와 Lusya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고 전화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Lusya와 Eduard가 복음에 대해 더 열려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지서의

Rich



이름과 활동 시기	주요 내용	관심 정보
이사야, 740-700 B.C. 66 장	곧 임박할 바빌론 유수와 귀환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초림과 그 시대 역사적 사건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거룩함과 왕권	이사야는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다. 예언의 장엄함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왕자”라 불린다.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유명한 찬송가는 바로 이사야 6장에 기초한다. 1-39장은 경고와 심판에, 40-66장은 구원과 소망에 초점을 맞춘다. 이사야의 사역 시기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722 B.C.)의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신약과의 관계” 참조) - 유 53:12)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특정한 개인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 신 죽음을 겪는다. 이사야서는 그 관심대상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온 세상의 구원의
예레미야, 626-587 B.C. 52 장	국가와 역사만큼이나 개인의 인생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사야는 전자를 더 강하게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징벌(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받아 들임으로서 치유받음(렘 29:4-7 참조)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보통의 환경이었다면 그도 이 바빌론 유수 직전의 유다에서 마지막 네 명의 왕의 통치시기에 사... 그의 메시지는 회개함으로 포로됨을 피하라는 내용에서, 포로됨으로 받아들여 회복의 길로 삼자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유명한 “새 언약” 예언이 31장 31-34에 있다. 메시아는 “가지”로 불리워졌다(23:5-6; 33:15-16). 왕되실 메시아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리웠다(23:6; 33:16).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감옥에 갇힘,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당한 구타 때문이다. 33:10-11은 유태인 결혼식의 일부분이다(“일곱 결혼 기도” 중 마지막)
에스겔, 582-570 B.C. 48 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사야가, 국가와 역사에 있는 그분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한다면, 에스겔은 그의 예언적 환상에서 본, 하나님의 초월성과 경외성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에스겔 18장은, 각 사람이 - 그리고 각 세대가 - 자기의 죄를 대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파수꾼”이로 위임받은 이들은 악을 대면하여 죄악에 대하여 말할 의무가 있다(3:17, 33:2-9)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으며, 에스겔서를 쓸 당시에 바빌론에 포로로... 그의 메시지들은 종종 연극이나 행위예술로 표현되었는데, 예를 들... 는다든가(4장), 머리카락을 깎고서 그것을 검으로 친다(5장). 예레미야의 경우와 달리, 에스겔과 같이 있었던 포로들은 그에게 구... 거리로만 여겼던 것 같다!(33:30-33) 마른 뼈가 다시 붙고 살이 오르는 환상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호... 40-48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미래의 성전에 대한 상세한 환상... 에스겔서는, 1장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환상을 담... 뼈서, 에스겔이 간질환자라든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왔다는 황당하...
다니엘, 604-535 B.C. 12 장	-개인의 인생들, 역사, 그리고 정치권력과 인간 간의 악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는 이로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를 기록하며, 느부갓네살... 고레스 치하의 때이다. 히브리어(1:1-2:4a; 8:1-12:13)와 아람어(2:4b-7:28)로 쓰여짐 유태인식 순서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선지서가 아니라 시가서에 속... “벽에 있는 쓰여짐”이라는 구절은 5장 5-28에 기초함 유명한 풀무불 이야기(3장)와 사자굴 이야기(6장)가 있음 교회는 메시아의 초림을 나타내는 “시간 단서”로 단 9:24-27을 보통... 용되지 않음)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들(신약과의 관계 참조) 12장 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함

참조자료

이사야:

Motyer, J. Alec. Isaia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InterVarsity, 1999.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2 volumes). Eerdmans, 1986, 1998.

예레미야:

Brown, Michael L. “Jeremia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Revised Edition, vol. 7. Zondervan, 2010. Brown is a Jewish believer in Jesus.
Thompson, John A. The Book of Jeremiah. Grand Rapids: Eerdmans, 1980.

에스겔:

Alexander, Ralph H. “Ezekiel.”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Revised Edition, vol. 12. Zondervan, 2010.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97, 1998.

의 선지자들

Robinson



신약과의 관계

하였다.
포로가 되었다.
명한 “고통받는 종” 구절(52:13 -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
로 옮긴다.

이사야서의 많은 구절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세례요한의 탄생(사 40:1-3 - 마 3:3, 막 1:2, 눅 4:17; 요 1:23)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사 7:14/ 마 1:22-23)
갈릴리에서의 사역(사 9:1-2/ 마 4:12-16)
그의 치유와 속죄 사역(사 53:4/ 마 8:17; 사 42:1-13/ 마 12:15-21)
인간 마음의 본성(사 6:10 - 마 13:14-15, 막 7:6, 요 12:40, 행 28:26-27; 사 29:13 - 마 15:7-9)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남음(사 1:9 - 롬 9:29, 사 10:22 - 롬 9:27-28)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됨(사 65:1 - 롬 10:20; 사 11:10 - 롬 15:12)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행 8:26-39)

마 같은 사역을 하였을 것이다.
역하였다.
이 확실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
은갖 소동과, 음해에서 오는 고통,
(막 1)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다:
마 2:18에 기록된 헤롯 왕의 영아 학살(렘 31:15)
새 언약이 임함(렘 31:31-34) - 히브리서 8:8-12에서 인용되었으며 눅 22:20, 고전 11:25, 고 후 3:6 그리고 히 9:15, 12:24에서 언급함.
성전을 정결케함(렘 7:11) - 마 21:13에 기록됨
이방인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롬 9:20-24) - 렘 18:6에 언급됨

로 잡혀있었다.
들어, 공공장소에서 옆으로 드러눕
귀기울이기를 즐겼지만, 그저 흥미
복을 예언한다
고 있다. 어떤 저자들은 이 구절만
한 이론들을 주장하였다!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인용하거나 언급한 내용: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들(겔 36:22, 롬 2:24
에서 인용)
-39장에서 언급한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 20:8에서, 역사의 마지막 전쟁과 관련되어 언급
되고 있다.
47:12에서 묘사된 “생명의 강”은 요한계시록 22:1-2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다.

살, 벨사살, 메대인 다리오, 그리고
속함
통 이해했음(그러나 신약에서는 인

예수님을 “인자(人子)”로 부를 때, 이는 단 7:13에 있는 초자연적인 형상에 대한 내용을 가리
키며, 예수님의 인성(人性)보다 신성(神性)을 더 설명하는 이름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마 26:64, 막 14:62)는 단 7:13을 가리킴, 또한 계 1:7(단 7:13와
스가랴 12:10을 같이 참조)
마 24:15-16에 기록된 “멸망의 가증한 것”은 단 9:2, 11:31, 12:11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13-14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단 7:9, 13에서 가져온 것임
사자굴 이야기와 풀무불 이야기는 히브리서 11:33-34에서 언급함

여기서 “대(大)”는 각 성경의 분량 때문에
붙인 이름이고 중요성과 상관없다. 다니엘
서를 제외한다면 대선지서들은 소선지서
들보다 꽤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

다니엘:
Hill, Andrew E. “Daniel.”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Revised Edition, vol. 8, Zondervan,
2008.
Longman III, Tremper. Daniel. Zondervan, 1999.

iel.” In The Expositor’s
d Edition, vol. 7. Zonder-
of Ezekiel (2 volumes).

로쉬 하샤나



로쉬 하샤나(유태 달력 신년제)는 9월 28일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로쉬 하샤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를 나팔절, 또는 욘 트루아(Yom Teruah)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우리의 본부장인 David Brickner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욘 트루아(나팔절)에서 로쉬 하샤나(신년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부는 전통은 현재까지 이 축제의 가장 중심적인 종교 요소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회당에서는 나팔을 전통적으로 총백번을 부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쓰는 나팔은 늦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날 중심이 되는 이 악기는 더 먼 고대의 전통에서 왔습니다;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으로, 쇼파(shofar)라고도 부릅니다.

쇼파가 뿔어내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이 썩 아름다운 소리가 아님을 먼저 당부해두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소리로, 짧은 숫양 뿔이 내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높은 소리입니다. 예멘식 뿔나팔은 좀 더 길어서 낮고 짙은 소리를 내지만 그것도 좀 으스스하지요. 어느 뿔나팔도 그렇게 듣기 즐거운 소리를 내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기 때

문에 바로 나팔절이 의도하는 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사는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울고, 우리가 주위환경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혹하고, 근심거리에 사로잡히게 하고, 즐거움을 쫓는 것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께서는 소동과 산만함을 넘어 우리가 눈을 들도록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속세적인,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서, 거룩한 분의 영역에서 샘솟는 영적, 영원한 진리를 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뿔나팔을 사

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부르시고...이 깊은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지부에서는 특별한 절기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로쉬 하샤나에 우리는 뿔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전통 꿀케익과 사과 조각들을 꿀에 찍어먹는 행사도 할 것입니다.

어떤 지부에서는 특별한 전도행사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모스크바 팀은 이 절기에 "미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모스크바 지부 본부장인 Maxim Ammosov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문서과 과장인 Ira는 로쉬 하샤나 전도 캠페인에 대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사무국장인 Tanya가 주로 사진을 찍지요. 저는 어느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Tanya는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좋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 곳에 간 목적보다 카메라를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빨간 가방을 가진 남자를 보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 나누었고 저는 곧 카메라를 잊어버렸습니다. 미하일은 2차 세계 대전 참전용사이며, 유대인이고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죄인의 기도를 정말로 하고 싶었고, 저는 그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무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 또 하나의 현실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체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 그러나 미하일과 저는 전혀 바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미하일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시오.

JEW
FOR
JESUS

이 절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근처에 혹시 저희 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http://www.jewsforjesus.org/judaica/roshhashana> 를 참조해주세요.